

## 페루 농촌 사회의 변동과 안데스 농민 공동체의 변화: 유토피아적 공동체주의를 넘어

서지현

(부경대학교 조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오리엔탈리즘적 라틴아메리카 읽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안데스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류학자 오린 스타(Orin Starn)의 '안데스주의(Andeanism)'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외부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안데스 사회와 실제 현실 속의 안데스 농민 공동체의 간극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데스주의는 안데스 지역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잉카 제국 시기의 호혜적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역사적, 물장소적 인식은 안데스 지역과 외부 지역을 이분화하고 안데스 지역을 잉카의 과거와 안데스 고산이라는 특정장소와 고정해서 인식하고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사이드(Said)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드러낸 식민주의적 인식 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데스주의적 인식 틀은 스페인 식민 지배 시기 이후 이 사회가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를 특정 시기와 장소에 고정해서 인식하고 이를 과장 혹은 왜곡해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관찰자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 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는 스타의 안데스주의 개념에 착안해 변동하는 페루 안데스 농촌 사회의 농민 공동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부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 변화를 겪고 있는 농민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적 안데스 사회 읽기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한다.

주제어 : 오리엔탈리즘, 안데스주의, 신농촌성, 농민 공동체, 페루

## 1. 서론

박윤주(2013)는 한국 언론의 미디어 보도 행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인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의 특정 이슈만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행태에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박윤주 2013:141).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과 관련된 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이 마약이나 범죄 혹은 신흥시장과 경제 교류 등과 같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와 인식구조를 한 방향으로 고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윤주 2013:140). 박윤주(2013)에 따르면,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통해 비판하고자 했던 서구의 식민주의적 담론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서구가 서구의 시각에서 동양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자화한 것과 유사한 행태가 한국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언론은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이슈를 과장 혹은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박윤주 2013).

같은 맥락에서 박정원(2015) 역시 TV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행 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타 문화권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타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있어 TV 프로그램의 여행 서사에는 다문화주의적 인식이 재현되고 있다(박정원 2015: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서구라는 인식틀에 의지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를 읽는 대안적 시각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박정원 2015:183).

이처럼 한국 사회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적 인식

들에서 몇몇 가시화된 이슈가 부풀려지거나 혹은 왜곡되어 이해되거나, 혹은 “다문화적 타자”로서 이해되는데 그치고 있다(박정원 2015:183). 이러한 경향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한국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populism)은 선거철만 되면 자주 언급되는 단골 키워드이다. 언론이나 TV 프로그램이 특정 이슈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다루는 것은 실제 이러한 이슈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보고자 하는 바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박윤주 2013:140-141). 즉, 해외 지역 특정 이슈에 대한 가시화는 한국 사회가 보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 현상이나 이슈를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하여 현상만 소개하게 될 경우 그 현상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이해될 수도 있다. 이는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연구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해외 지역연구자들은 해외 지역 현장 연구에 대한 과학적 권위를 근거로 특정 이슈나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한국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적 라틴아메리카 읽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안데스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페루 안데스 사회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인류학자 오린 스타(Orin Starn)의 ‘안데스주의(Andeanism)’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외부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안데스 사회와 실제 현실 속의 안데스 농민 공동체의 간극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타는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에 착안하여 안데스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안데스주의는 안데스 지역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잉카 제국 시기의 호혜적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역사적, 몰장소적 인식은 안데스 지역과 외부 지역을 이분화하고 안데스 지역을 잉카의 과거와 안데스 고산이라는 특정 장소에 고정해서 인식하고 타자화한다는 점에

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드러낸 식민주의적 인식 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데스주의적 인식 틀은 스페인 식민 지배 시기 이후 이 사회가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를 특정 시기와 장소에 고정해서 인식하고 이를 과장 혹은 왜곡해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관찰자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 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는 스탠의 안데스주의 개념에 착안해 변동하는 페루 안데스 농촌 사회의 농민 공동체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부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 변화를 겪고 있는 농민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적 안데스 사회 읽기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 페루 농촌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변동을 ‘신농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스탠의 ‘안데스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농촌 사회의 변동 속에서 외부 관찰자들이 보고자 하는 안데스 농촌 사회와 현실 사회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각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안데스 지역 농민 공동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안데스 사회 읽기를 시도한다. 5장에서는 안데스 지역 농민 공동체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공동체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해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페루 농촌 사회의 변동과 신농촌성(New Rurality)

### 1. 라틴아메리카 농촌 경제 구조의 변화와 신농촌성

크리스토팔 케이(Christóbal Kay)는 오랜 기간 라틴아메리카의 농촌 발전, 농촌 사회 변동, 개발 모델 비교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 온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농촌 사회학자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2022년 도시화율이 80.62%에 이를 정도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농촌 빈곤과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회 운동, 환경 및 문화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농촌 사회의 변화와 쟁점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케이(Kay)가 20세기 후반 경제 세계화와 함께 나타난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의 특징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농촌성(New Rural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농촌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페루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케이(2008)가 설명하고 있듯, 1960년대 1980년대 사이의 시기는 농업과 농촌 연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라틴아메리카 농촌 경제와 사회 변동이 가시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케이(2001)는 라틴아메리카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의 근본적 요인을 불평등한 토지 분배 구조에서 찾았는데, 20세기 중반은 이러한 토지 분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저항이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시기였다. 이 시기 각국의 정부는 토지 분배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에 대응하고, 농업 근대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개혁(agrarian reform)을 실시했다. 물론, 중미 국가들과 같이 토지 구조가 미국 자본과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경우에는 농업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전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적 결과로 이어졌으며, 브라질처럼 광활한 미개척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선 기존 토지 구조의 변화 없이 아마존 식민화를 통해 농촌 사회의 요구를 무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20세기 중반 광범위한 농업 개혁과 토지 개혁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 개혁의 결과는 대지주에 기반한 농업 구조를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peasant farming) 구조로 완전히 바꿀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정부의 농업 근대화 정책 역시 농민 농업에 생산성의 향상을 이를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Kay 2002). 케이는 이러한 농업 개혁의 한계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 농업 구조 변화와 산업화 연계 정도 등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수십 년 앞서 산업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Kay 2002).

한편,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외채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the Washington Consensus)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 조정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은 라틴아메리카의 농업 구조와 농촌 사회 구조 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워지고,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초국적 농산업 기업이 주도하는 농산업의 발전이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의 광활한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두 산업을 들 수 있다. 특히 남미 지역에서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대두는 초국적 농산업 기업의 기술과 자본 투자에 기반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이하 GM) 대두로 식량, 사료, 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다기능 작물(flex crop)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미를 대표하는 수출 작물로 성장했다(서지현 2021). 두 번째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와 취향 변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다변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커피, 사탕수수, 곡물 등과 같은 전통 작물이 아닌 비전통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났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1990년대 이후 과일, 채소, 꽃 등 비전통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이처럼 199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국내외 민간 자본이 투자하고, 개방된 수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대규모 상업 농업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작물을 생산하던 영세 농민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를 통해 대

량으로 수입된 농산물의 유입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그동안 농업 근대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던 혜택이 점차 줄어들면서 농업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은 농촌 경제 구조의 이분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농촌 경제 구조의 변화는 비단 농업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는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원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 및 조세 정책들을 개혁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 및 석유 개발과 같은 전통적인 원자재 산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양식업, 임업, 관광 산업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자연 및 문화 자원에 기반한 자원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초국적 자본의 기술과 자본 투자에 힘입어 자원 개발의 규모와 범위가 유례없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원 개발 산업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농촌 사회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진행된 자원 개발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농촌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효과가 미약했던 반면, 농촌 사회의 토지, 물과 같은 생태 환경과 지역의 사회 및 문화 변화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 나타난 농업 및 농촌 경제의 이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 사회 변화의 특징을 케이(2008)는 ‘신농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원래 신농촌성이라는 용어는 1993년 아르헨티나 출신 농촌 사회학자인 노르마 히아라카(Norma Giarracca)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케이(2008)가 20세기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 변동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2008년 그의 논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어권 및 다른 지역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케이(2008)는 논문에서 신농촌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농촌 사회에서 노동의 성격 변화에 주목했다.

신농촌성의 첫 번째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의 주된 경제 활

동이 전통적인 농업에서 비농업(non-farm 혹은 off-farm)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농촌에서 경제 사회 활동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농업 구조의 이분화가 심화되면서, 영세 농민들이나 농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농사에만 생계(livelihood)를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농업 이외에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을 생계전략으로 활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케이는 설명한다(Kay 2008:922). 결과적으로 갈수록 많은 농촌 공동체들은 시장 경제에 통합되게 되었는데, 1980년대 초에만 해도 농촌 인구의 소득은 주로 농업에서 창출되었지만, 1990년대 말경 비농업 부분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약 50%에 육박하게 된다(Kay 2008:923-924). 비농업 경제 활동은 주로 소매업, 농촌 관광, 운수업 등과 같은 상업과 서비스 활동을 일컫는다(Kay 2008:923).

신농촌성의 두 번째 특징은 농촌 사회 고용 구조의 유연화와 노동의 여성화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적 농업은 농업 근대화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농업 근대화 정책을 통해 각국 정부는 살충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화학 농업을 본격화하였고, 농업의 기계화를 진전시켰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농업 근대화 정책의 목표는 농업 근대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당시 농업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농촌 사회 운동에 대응하여 농민에게 경제 사회적 지원을 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한 목표도 있었다. 따라서 농촌 사회에서는 토지 개혁과 더불어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농사짓기 위한’ 경작지를 확보하고 농사짓기 위한 기술과 자본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농민들의 비중이 증가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초국적 농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농업 구조의 이분화가 심화되었다. 이들 농산업 기업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경작지의 집중화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지 없는 농민들의 수가 증가했다. 또한 대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은 주로 계절적 임노동자로 일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 20세기 중반과 같이 농민의 조직화나 농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농업 노동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Kay 2008:924). 이와 더불어 과일, 채소, 꽃 경작과 같은 비전통 농산물 생산 부분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늘면서 농업 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났다(Kay 2008:925).

신농촌성의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농촌 사회 주체와 쟁점의 등장이다. 농촌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농촌 구조 이분화의 심화에 따라 토지 잃은 농민이나 열악해진 노동 조건을 견뎌야 하는 농민들이 늘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농민 계층이 20세기 중반과 같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민운동을 이끌 수 있는 조직화 능력이 약화되었다. 계급적 조직화가 어려워진 라틴아메리카의 농촌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사회적 주체로 부상한 이들이 원주민이었다. 원주민의 조직화와 원주민 운동은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 사회적 변동을 이끈 주요 주체로 부상하였고, 농업 노동자들 역시 무토지 농민운동을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농업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농촌에서 다시 발전하게 된 자원 개발 산업은 다양한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면서 농촌 사회 발전에 있어 다양한 쟁점들을 야기했다. 20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에서 주로 다루졌던 쟁점이 토지 분배, 농업 근대화 등과 같은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 문제에 집중되었던 반면,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속 가능 발전, 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 발전, 공동 자원 거버넌스(common-pool resource governance),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 민족 자결권, 자치,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등 다양한 쟁점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신농촌성의 마지막 특징은 변화된 농촌 사회 구조 아래에서 세계전략으로서의 이주 현상이다. 이주 현상은 크게 도시로의 이주와 해외 지역으로의 이주로 나타났다. 농촌 사회에서 토지를 잃거나 시장 경쟁에

서 밀려난 농민들은 주변의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생계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많은 농촌 지역 출신들이 도시 빈민가에 자리잡거나 혹은 농촌 지역의 대농장이나 농산업 공장에 일하는 도시 빈민들이 늘어나면서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다. 또한 많은 농촌 빈민은 해외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위해 멕시코 농업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의 생계 수단을 잃은 많은 농민이 주변 도시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고, 이주에 성공한 사람들은 송금을 통해 농촌 사회의 가정이나 농촌 사회의 중요한 재정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주민 송출 비중이 높은 중미나 카리브해 지역 등에서는 실제 송금이 중요한 국가 재정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외채위기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많은 국가에서 농촌 경제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 신농촌성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요인을 제공했다. 케이(2008)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신농촌성은 20세기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 변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있지만, 농촌 사회 변동의 요인이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신농촌성은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유용하지만 농촌 경제 구조가 이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 계층의 다분화와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 약화나 상실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농업과 농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구조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케이는 신농촌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라틴아메리카의 농촌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과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ay 2008).

## 2. 페루 농촌 사회의 변동과 신농촌성

그렇다면 페루 농촌 사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케이이 설명했던 198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난 농촌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페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0세기 중반 페루 농촌 사회는 이중적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농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농과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 농업 생산자와 농민 공동체의 소규모 경작지를 중심으로 자가소비나 지역의 소규모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 농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Hunefeldt 1997:107). 하지만 페루식 개혁을 시도한 벨라스코 정권 시기 토지 개혁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사회는 경관은 보다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1969년 벨라스코 정부가 농업 개혁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남부 안데스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농민운동, 해안지역에서의 농업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급진화에서 비롯된 페루 농촌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가 자리하고 있었다(Hunefeldt 1997:109). 이러한 농촌 사회의 개혁 요구는 독립 이후 계속해서 과두 지배 계층이 주도해 온 발전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었고, 벨라스코 정부는 이러한 농촌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969년 농업 개혁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실제 벨라스코 정부가 농업 개혁법을 공포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농촌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통해 대중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과두지배계층의 지배 기반을 형성했던 토지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벨라스코 정권이 시도한 농업 개혁은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과 속도로 진행되었다. 농업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국가는 저리의 농업 대출, 농업 투입재와 기계 등의 지원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조직화된 농민운동과 단체들을 국가가 포섭하여 농촌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러한 농업 개혁의 결과 페루에서는 전체 경작지의 약 42%를 차지하는 9,672,017 헥타르의 토지가 분배되어, 429,384명의 농민과 농업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았다(Hunefeldt 1997:110). 다시 말해, 벨라스코 집권 시기 농업 개혁을 통해 농촌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약 40%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입었다(Hunefeldt 1997:110). 이러한 결과는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세계적 기준에서도 유례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Hunefeldt 1997:110).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 및 농촌 경제 사회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국가에 집중화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농업 개혁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농민과 농업 생산자들에게 분배되었지만, 농업 정책에서 국가의 권위주의적 접근, 관료주의화, 국내외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농업 근대화에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에 접어들어 기존에 국가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며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늘리기 시작한다(Hunefeldt 1997:112-114). 1980년대 중반부터 페루에서 시행된 농업 부분의 민영화는 1990년 후지모리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농업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줄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국내외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법을 개혁함으로써 농업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상업 영농이 이뤄지던 해안지역에서는 대규모 자본 기술 집약적 농업 생산과 수출이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퀴노아 등의 비전통 작물의 생산과 수출도 증가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도입과 함께, 페루의 농촌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자원 개발 붐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는 광산 개발, 석유개발, 관광 산업의 개

밭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페루 역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사회 구조의 이중화가 심화되고, 신농촌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농촌 사회의 변화가 나타났다. 페루에서 생산·수출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전통적인 농산물인 사탕수수, 감자, 쌀, 면화 등이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와 같은 비전통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도 늘기 시작했다(서지현 2022:63). 페루의 대표적인 비전통 수출 농산물은 아스파라거스를 들 수 있는데, 페루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아스파라거스 생산국으로 주로 전통적인 상업 영농지역인 해안지역에서 생산된다(서지현 2022:80). 대표적인 아스파라거스 생산 지역은 라 리베르타(La Libertad)주와 이카(Ica)주이다. 이들 전통 농업 지역은 20세기 중반 페루의 농업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관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상업 영농이 발전하기 시작했다(서지현 2022:81-82).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관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대형 자본이 주도하는 수출 영농이 보다 확대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아스파라거스는 비전통 농산물 수출 붐을 이끈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서지현 2022:82). 페루에서 이러한 비전통 농산물 생산과 수출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페루의 거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주로 대규모 자본에게 유리한 농업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농업 경제 구조의 이분화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경작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토지가 대규모 민간 자본에 집중화되고, 관개 프로젝트로 인한 물 사용이 대규모 상업 영농 생산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주변 영세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서지현 2022). 이 과정에서 영세한 농민들이 토지와 물과 같은 생계 수단을 잃게 되면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 및 수출 붐에 따른 신농촌성의 등장은 퀴노아 생산 붐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퀴노아는 주로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소비되어 온 작물로, 2013년 UN이 퀴노아의 해를 선언하며, 퀴노아가 가진 슈퍼 곡물로서의 영양적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홍보되기 전까지 해외에서는 물론 페루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Higuchi et al. 2022:1; McDonell 2024:96). 오히려 원주민의 작물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리마의 상류층은 퀴노아 소비를 꺼리기도 했다(McDonell 2024). 하지만 국내외에서 음식의 영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퀴노아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페루 정부는 퀴노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퀴노아를 생산하던 안데스 고산 지역이 아닌 해안지역에서 대규모 상업 영농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McDonell 2024:98). 그 결과 2011년까지만 해도 퀴노아 전체 생산량의 약 99%가 안데스 고산 지역에 집중되었다가 2014년에는 생산량의 40%가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졌다(McDonell 2024:98). 고산 지역과 달리 해안지역의 경우 기후 및 생태 환경, 기술적 지원 등의 요인으로 연간 이모작 생산이 가능했다(McDonell 2024:98). 이처럼 수출 작물로 전환된 퀴노아는 전통적으로 자가소비나 지역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규모로 생산하던 농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었다. 해안지역의 대규모 생산자들에 비해 턱없이 경쟁력이 부족했던 고산 지역 농민들은 점차 퀴노아 생산을 생계전략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수출 농작물로 전환되면서 퀴노아의 국내 퀴노아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싼값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먹거리를 대체하여 소비하게 되었다(García 2013:517).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경작하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배제되며 새로운 생계전략을 찾아야 했다.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아스파라거스나 퀴노아 생산 및 수출 붐은 페루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중적 농업 구조를 심화하고 영세 농민들의 생계 기반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 환경 및 문화적 이슈 등 다양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농업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1990년대 이후 특히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심화된 다양한 자원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페루의 농촌 경제 구조의 이분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농촌 사회의 구성원들은 농업이나 목축업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비농업 활동을 생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 사회 계층은 빈민화되고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고 있다. 또한 페루의 옴부즈만 사무소가 발간하는 사회분쟁 보고서<sup>1)</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농촌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자원 개발 기반한 페루의 발전 모델이 야기하는 사회 환경적 영향은 전국적인 사회분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페루 농촌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 조직인 농민 공동체(comunidad campesina)는 이러한 페루 농촌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농민 공동체는 강력한 자본의 힘에 떠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안데스의 이상적인 공동체주의의 새로운 부상을 준비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페루 농촌 사회의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안데스 농촌 지역 농민 공동체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안데스 사회의 농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I. 안데스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농촌 사회 운동이나 혁명적 게릴라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촌 사회 운동을 이끌었던 농민들은 기껏해야 진보적 정당이나 좌파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사회적 변화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농업 근대화를 추

1) 2024년 1월 발간된 페루 옴부즈만 사무소(Defensoría del Pueblo)의 사회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14건의 사회분쟁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27건이 사회 환경 분쟁이다(Defensoría del Pueblo 2024).

진하는 국가로부터 농업 보조 정책의 지원받는 대상으로 평가 절하되곤 했었다. 이러한 농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절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시장의 힘이 한층 강화되는 1970년대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 정책은 더 이상 현실화될 수 없었고, 이전과 같이 혁명적 혹은 수정주의적 정책은 정치적 아젠다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화된 농촌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영세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과 같은 농민 조직화나 농촌 사회 운동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특히 주로 농촌 사회의 정치 경제적 분석을 하는 구조주의학자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강력한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 앞에서 영세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거나 생계를 위해 일시적인 계절적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도시나 국외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Kay 2006; McMichael 2006, 2009; Akram-Lohdi and Kay 2009; Araghi, 2009; Teubal 2009). 따라서 홉스봄(Hobsbawm 1994)이 일전에 ‘농민 계층의 소멸(the death of the peasantry)’을 주장했던 바와 같이, 구조주의 입장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에서 농민 정치 사회적 조직의 약화, 분열,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케이 역시 농촌 경제의 이분화가 심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 농촌 사회의 농민들이 농업 이외의 다양한 생계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신농촌성을 구성하는 특징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Kay 2008).

하지만 만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서 배제되거나 분열되는 농촌 사회의 정치 사회적 조직을 가정한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농촌 사회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1994년 멕시코의 치아파스(Chiapas) 지역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와 함께 봉기했던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EZLN),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에서 처음으로 조직화하여 브라질 농촌 사회 운동을 이끈 무토지 농민 운동(MST)의 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서지현 2024)? 혹은 과테말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부상해서 각국의 중요한 정치사회 세력으로 자리잡은 원주민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주제로 등장한 새로운 농촌 사회 운동은 라틴아메리카 각국 농촌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산 개발, 수력 발전 댐 건설, 목재 개발, 농산업의 확장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Teubal 2009; Deere and Royce 2009). 특히 안데스 지역의 농촌 사회 운동은 농산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비판 및 반대 운동에 앞장서면서 진보 정권의 집권이나 대안적 발전 논의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의 철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부엔 비비르(Buen vivir)가 국내에서 대안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이자 “전환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개되면서(서지현 2023:273),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 혹은 농민 공동체를 유토피아적 공동체주의의 모델로 보고자하는 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페루 안데스 농촌 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인류학자인 오린 스타(Orin Starn)은 오늘날 안데스 농촌 사회의 농민 공동체(혹은 원주민 공동체)를 여전히 상호 호혜적 관계에 근거한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것은 몰역사적, 몰장소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Starn 1991;1994).

스타(1991)의 논의는 1970년대 페루의 안데스 남부 고산 지역을 연구하던 인류학자들이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의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즉, 20세기 내내 안데스 지역을 연구하던 인류학자들은 스스로를 안데스 지역 사람들

의 이해관계와 욕구를 포함한 안데스의 삶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자부했다(Starn 1991:63). 이들의 전문성은 현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자로서의 과학적 권위로 정당화 되어왔다(Starn 1991:63). 물론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인류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이 센데로 루미노소와 같은 무장 혁명 세력의 혁명 발발을 반드시 예측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폐쇄적 조직 구조 내에서 오랜 기간 이데올로기 구축 작업을 진행했던 센데로 루미노소의 무장 혁명을 예측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려웠을 수 있다(Starn 199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인이 비판하고자 한 지점은 왜 센데로 루미노소가 주도한 무장 혁명에 안데스 지역 외부의 많은 급진주의 청년이 공감했는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스타인은 그 원인이 안데스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몰역사적, 몰장소적 인식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스타인은 이러한 인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안데스주의(Andean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안데스주의는 안데스 지역과 지역 사람들을 특정 시기와 장소에 고착해서 바라보는 인식 틀을 의미한다. 그는 안데스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데스 지역과 이 지역에 사는 고산 지역 농민들을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물결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인식했음을 비판하고자 했다(Starn 1991:64). 즉,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안데스 농촌 지역의 삶이란 스페인 식민 지배 시기부터 거의 변화한 것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Starn 1991:64). 스타인은 이러한 안데스주의적 인식은 이후 많은 소설가, 정치인, 여행가, 영화 제작자, 미술가, 사진가 등 외부인들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외부의 인류학자들에게도 예외없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Starn 1991:64). 이러한 안데스주의적 인식의 틀에서 외부 관찰자들은 안데스 농촌 사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및 열대우림 저지대, 해안 지역과 실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간과했고, 그로 인해 안데스 지역 외부에서 많은 급진주의적 청년을 중심으로 센데로 루미노소의 혁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지점을 설명해내지 못했다(Starn 1991:64). 안데스주

의적 인식은 안데스 농촌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의 물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사회 공간으로 인식되는 데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구조는 국내의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안데스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개하게 되면 여지없이 잉카 문명의 후손들이라고 여겨지는 원주민, 농촌 사회, 자본주의 근대화나 세계화의 물결에서는 동떨어진 공동체주의적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하지 않는 학자들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가령 페루의 안데스 고산 지역 연구를 원주민 연구와 동일시하는 인식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은 라스무센(Rasmussen)이 지적하고 있듯이, 안데스의 농촌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대부분 스페인 정복 시기 이전 잉카의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Rasmussen 2020:77). 하지만 안데스 사회는 식민화 과정, 독립 이후의 근대화,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절연된 폐쇄적이고 이상화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페루의 중부 안데스 고산 지역을 연구한 인류학자 플로렌시아 마용(Florencia Mallon)은 페루 중부 안데스의 만타로 밸리(Mantaro Valley) 지역의 농민들이 자본주의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농민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농촌 사회의 계급적 분화가 진행된 과정을 분석했다(Mallon 1983).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포울리외(Pouliot)과 라스무센(Rasmussen)은 안데스 지역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주체인 농민 공동체를 근대 국가나 자본과 같은 권력관계와 농민 개인의 생계전략의 변화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ouliot and Ramussen 2023).

페루 안데스 지역 농민 공동체는 1987년 제정된 농민 공동체 법(Ley, 24656, Ley General de Comunidades Campesinas)에 따라 6,000개 이상

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Rasmussen 2020:76). 하지만 실제 농민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로 얽힌 제도이며, 20세기 초반 이후 페루에서 농민 공동체는 국가가 안데스 지역 농민들과 관계를 맺는 대개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Vincent 2012:241; Rasmussen 2020:77). 다시 말해, 실제 농민 공동체는 보다 거시적인 정치 경제 과정과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그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켜왔다. 20세기 초반 이후 페루에서 농민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레기아(Leguía) 정부 1920년 원주민 공동체(comunidad indígena, 당시에는 농민 공동체가 아닌 원주민 공동체로 인정되었음)법을 제정하면서부터였다<sup>2)</sup>. 레기아 정부는 인디헤니스타(indigenista)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원주민 공동체 법을 제정했다(Vincent 2012:239). 국가의 입장에서는 원주민 공동체를 합법화함으로써, 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의 노동력 동원에 원주민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농민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공동체의 합법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Vincent 2012:241). 이와 같은 법적 인정을 토대로 고산 지대의 농민과 원주민은 국가의 근대화 전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Rasmussen 2020:76).

하지만 1920년에 원주민 공동체가 법적으로 승인된 후에도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주들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이후 안데스 지역에서의 대지주제에 분열을 가하고, 농민 공동체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1969년 벨라스코의 토지개혁법이 제정된 이후였다. 토지 개혁 과정에서 토지는 그동안 안데스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 왔던 지주들,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국가, 지주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근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던 농민들 간의 관계 변화에서 핵심적인 자원이었다. 따라서 토지 개혁

---

2) 페루에서 원주민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24년이었는데, 실제로는 원주민 공동체가 유지되다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은 1920년 헌법을 통해서이다(Vincent 2012:241).

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안데스 지역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고 농업 근대화 전략을 펼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농민들은 토지 개혁법이라는 진보와 근대화의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지주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이용과 관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계전략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벨라스코 정부가 토지 개혁 과정에서 안데스 지역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edades Agrícolas de Interés Social, 이하 SAIS)을 조직하여 정부 관료들을 통해 지역 농민들을 통제하고자 농업 근대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많은 안데스 지역 농민들은 SAIS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비판을 가하거나, SAIS에 포섭되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코 시기의 토지 개혁은 안데스 농촌 사회에서 대지주의 영향력에 분열을 가하고,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벨라스코 시기 이후 안데스 농촌 사회에서 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주체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 공동체 간의 관계 변화는 시장주의 정책이 도입되고, 농업 경제의 이중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민 공동체의 구성과 농민 공동체와 토지의 관계 및 의미 또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페루 중부 안데스 앙카쉬(Ancash) 지역 카탁 농민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IV. 앙카쉬(Ancash) 카탁 농민 공동체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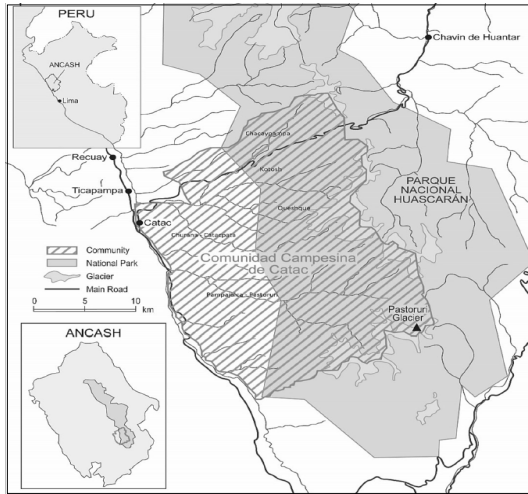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루 안데스 농촌의 정치 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농민 공동체가 어떠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지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 공동체의 관계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 공동체의 구성과 토지와의 관계 및 의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앙카쉬 지역의 카탁 농민 공동체의 사례<sup>3)</sup>를 통

해 이러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카탁 농민 공동체(Comunidad Campesina Cátac, 이하 CCC)는 앙카쉬(Ancash) 주의 안데스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민 공동체이다. CCC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벨라스코 정권 시기 진행된 토지 개혁 이전에는 대지주의 통제 아래 있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1). 1946년 국가로부터 농민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지주가 여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4). 1950년대~1960년대 사이 토지 투쟁을 거쳐, 벨라스코 정권 아래에서 토지 개혁이 시작되면서 CCC의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늘려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4). 현재 CCC에는 922명의 농민이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된 농민이 가구(household)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CCC는 3,500명 이상의 농민 가족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3). CCC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66,000 헥타르에 달하며, 이들의 토지는 해발고도 3,600m 이상의 고산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3).

- 
- 3) 안데스 농촌의 농민 공동체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사례로 카탁 농민 공동체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2차 자료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데스 농촌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농민 공동체는 6,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카탁 농민 공동체의 사례가 안데스 지역 농민 공동체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에서 안데스 농촌 사회와 농민 공동체를 특정 역사 시기와 장소에 고정해서 인식하는 안데스주의적 인식의 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소통, 교류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농민 공동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지도 1. 카탁 농민 공동체의 위치



출처: Pouliot and Rasmussen(2023: 4)

해발고도 3,200m 이상의 안데스 생태 지역을 푸나(puna) 지역이라고 부른다. 먼저 이 지역 농민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안데스의 푸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뤄진 농경 방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안데스 고산 지역의 경우 강우량이 부족하고 토질이 좋지 않아 주로 전통적인 영농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또한 가파른 고산 지형으로 넓은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1~3 헥타르 정도의 소규모 토지에서 농민들은 감자, 옥수수, 콩, 퀴노아 등의 작물을 경작하곤 한다. 특히 안데스 고산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푸나 지역의 경우, 농사하기에 불리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높은 고도, 부족한 강수량, 낮은 토질과 같이 생태적으로 농사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농민들은 다양한 동식물을 키워냈다.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존 빅토르 무라(John Victor Murra)는 안데스 지역의 이러한 농업 경제 모델을 일컬어 “수직의 군도(vertical archipelago)”라고 불렀다 (Kerseen 2015:492). 이러한 농경 방식은 잉카 제국 시대 절정에 이른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잉카 제국의 유산 중 모라이(Moray)<sup>4)</sup>와 잉카의 계단식 경작지(anden)를 통해서도 “수직적 군도”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척박한 기후와 생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즉, 다양한 고도와 생태적 지역에 위치한 주민 간의 노동 및 작물 교환 체제를 유지하고 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생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은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공동체적 삶은 스페인 정복 이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를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대농장체제인 아시엔다(hacienda) 체제를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안데스 지역의 전통적인 친족 기반 공동체인 아이유(ayllu)가 해체된다. 농민들은 이전과 같이 생태 환경 및 공동체와의 호혜적,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토지를 잃고 빈곤한 농민의 처지로 내몰리거나 대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Kerseen 2015:492). 때문에, 이 지역 농민들에게 토지는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습법상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의미했고, 이후에도 지역 농민들에게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1969년 토지개혁법은 이러한 대농장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후 이 지역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흐름에 통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한 토지는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벨라스코 정부가 토지 개혁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은 조직화를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농민 공동체가 공동으로 조직화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스페인 정복 이전의 잉카 제국 시기와

4) 모라이는 고도에 따른 생태 환경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작물 경작을 실험한 잉카의 농업 연구 단지로 알려져 있다.



같은 의미에서의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관료주의적으로 조직화한 SAIS에 대한 반발로 CCC는 1974년 2개의 농·목축업 생산 협동조합을 조직했다(Rasmussen 2020:79). 여기에서 CCC가 정부로부터 회복하고자 했던 토지는 생계 수단에 대한 이용과 통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CCC는 생계 수단에 대한 권리를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공동체로 조직화해서 정부에 대응했으며, 이들의 생계 수단의 근간이었던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토지(ancestral right to the land)”의 회복을 의미했다(Rasmussen 2020:80).

한편, <지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CCC의 토지와 우아스카란 국립공원(Parque Nacional Huascarán)이 그 관리 영역이 겹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은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국립공원은 안데스 고산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빙하 등의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1977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역으로 인정받았다(Rasmussen 2019:5). 또한 우아스카란 국립공원 지역은 빙하를 비롯한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트레킹(trekking) 애호가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한편,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푸나 지역으로 주변의 많은 농민 공동체가 주로 가축의 목초지로 이용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CCC 농민들은 그동안 이용해 오던 목초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국립공원의 경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나, CCC를 포함한 주변 농민 공동체 농민들은 이 지역 토지에 대한 이용과 관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것이라고 여겼다(Rasmussen 2019: 5). 국립공원의 경계 지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포한 법령은 일부 “전통적인(traditional)” 자원 이용과 이미 존재하는 광산 활동은 계속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목초지 이용은 금지했다(Rasmussen 201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농민들이 오랜 기간 공원 내 지역의 목초지를 활용해 왔음을 인지

하고 목초지 활용에 대한 금지는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Rasmussen 2019:5). 이러한 완화 조치는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공원 내 목초지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의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Rasmussen 2019:5).

하지만 국립공원 관광은 주변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으로의 관광은 주로 수도 리마나 국립공원이 위치한 앙카쉬 주의 주도인 와라스(Huaraz)의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로 하루 방문 여행 코스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국립공원 방문 후 주도인 와라스에서 주로 머문다(Rasmussen 2019:6). 관광이 농민 공동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원의 보존과 주변 농민 공동체의 목초지 사용에 대한 권리 간의 분쟁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2007년 와라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우아스카란 국립공원 보존의 손을 들어주었다(Rasmussen 2019:7). 2007년 판결 이후, 국립공원과 CCC 간의 이해관계 조절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광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공원 측과 CCC 양자가 동일하게 절반씩 분배하고, CCC가 주변 도로와 관련 시설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Rasmussen 2019:7).

이처럼 국립공원의 경계를 둘러싼 국가와 CCC 간의 법적 공방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해조정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국립공원과 농민 공동체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각기 다른 법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즉, 국립공원의 권리는 보존지역 법에, 농민 공동체의 권리는 농민 공동체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국립공원과 CCC 모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100% 보장받을 수 없었다(Rasmussen 2019:7-8).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법원의 판결이 국립공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CCC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의 전통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인식했고, 국립공원의 경계는 CCC로부터 완전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속해서 분쟁 혹은 협상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Rasmussen 2019:8). 따라서 이전 시

기 토지 개혁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CCC는 국립공원 형성과 관련해서 목초지 이용 권리와 같이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거나 혹은 관광에 따른 수익 분배와 같은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동으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러한 법적 공방에서 CCC 권리의 근거는 전통적 토지에 대한 권리였으며, 이러한 권리는 목초지 이용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관광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CCC는 공동으로 조직화하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CCC의 구성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이후 페루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따라 농촌 경제가 변화하게 되면서, 특히 푸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CCC 농민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었다.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기후 변화는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은 빙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강수량과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기후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Rasmussen 2016:76). 지구 온난화 따라 빙하가 녹고, 강수량이 변화하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 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Rasmussen 2016:73). 가령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이전 같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료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Rasmussen 2016:80-81). 이러한 생태적 변화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해 오던 농민들의 생계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CCC에 속한 많은 농민은 여전히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경제적 생태적 변화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업과 목축업 이외의 경제 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CCC 내에서 이전과 같은 호혜적 사회관계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동의 교환은 점차 임금에 의한 자본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Rasmussen 2020:82). 공동체 내의 젊은 세대들은 점차 농촌에서의 삶보다는 도시에서의 기회를 얻고자 했고, 예전에 공동체에서 이뤄지던 공동 방목과 같

은 활동은 계약한 임노동자에게 맡겨지기도 했다(Rasmussen 2020:85). 그 결과 CCC의 구성도 농경과 목축 활동을 주로 생계전략으로 삼는 전통적인 농민이외에 계절적 임노동자와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농업 이외의 다양한 생계 활동을 하는 청년 세대의 구성 비율이 늘었다(Pouliot and Rasmussen 2023:5). 따라서 토지는 주된 생계 수단으로써 농사를 짓거나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점차 다양한 생계전략 중 하나로서의 의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농업이나 목축 활동이 이전과 같은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는 자가소비를 위한 경작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지역 농민에게 있어 자가소비를 위한 경작지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새롭게 구성된 CCC의 농민들이 농업과 목축업 이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각 가계의 생계전략을 추구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임시적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가진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토지는 불안정한 생계 조건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혹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Pouliot and Rasmussen 2023:9-10). 이러한 의미에서 CCC는 안데스 푸나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되며, 토지는 이러한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인 것이다.

## V. 결론

각자도생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강요받는 사회에서 날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이미 잃어버린 이상향일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한국 사회 한편에선 이러한 잃어버린 이상향의 흔적을 찾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사회관계의 회복을 위해 연대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저 멀리 지구 반대쪽에 유토피아적 공동체주의의 흔적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마주한 것과 같은 반가움이 아닐까? 본 연구는 어쩌면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시도일지도 모르겠다. 안데스 사회의 농민들은 농사짓기에 척박한 생태적 환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다양한 고도와 생태적 지역에 위치한 주민 간의 노동 및 작물 교환 체제를 유지하고 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생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안데스 제국 시기 절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스페인 식민 지배 시기 이후 서서히 붕괴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의 오리엔탈리즘적 안데스 읽기를 극복하고 잉카의 과거와 안데스 고산이라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고정된 안데스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상적 인식(안데스주의적 인식)과 현실 안데스 사회 사이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안데스 농촌 사회의 농민 공동체 중 하나인 중부 안데스 지역의 카팍 농민 공동체(CCC)의 사례를 통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안데스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농민 공동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와 토지의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토지 개혁으로 인해 안데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대지주제가 막을 내리면서, CCC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농사지을 땅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했다. 또한 국가의 관료주의적 협동조합 조직화(SAIS)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농·목축업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관습법에 근거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ancestral right to the land)”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했다. 이후 국립공원 형성 과정에서 CCC 농민들은 목초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CCC는 국립공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CCC 토지의 의미는 목초지 공동 관리에 대한 권리이자,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관광 소득에 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CCC는 이처럼 변화하는 생계 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

응함으로써 관습법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 회복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신농촌성의 등장으로 CCC 농민들은 점차 생계전략을 다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구성과 토지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공동체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실제 이 지역으로 임노동을 위해 이주 온 노동자들이나 도시에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세대도 포괄했다. 이들에게 토지는 더 이상 경작지나 목초지와 같은 주요 생계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열악해지는 생활환경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보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안데스 농촌 사회는 외부의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류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 공동체 내부에서는 잉카 시기와 같은 호혜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임노동적 관계의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데스 사회에서 농민 공동체와 같은 정치 사회적 제도는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개별적인 생계전략만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점에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인식론적 전환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향후 변동하는 공동체와 그 속의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박윤주(2013), 「미디어 모노컬처와 오리엔탈리즘: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보도 행태 연구」, 『중남미연구』, 32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139-162.
- 박정원(2015), 「아직은 너무 먼 ‘이웃’: <꽃보다 청춘>과 <세계테마기행>의 여행서사에 재현된 페루」, 『스페인어문학』, 74권, 한국스페인어문학회, 163-185.
- 서지현(2021),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미 대두 산업의 사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권 2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7-228.
- 서지현(2022),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비전통 농·식품 산업 발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5권 1호,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61-72.
- 서지현(2023), 「에콰도르 코레아(Correa) 정권과 부엔 비비르(Buen Vivir)」, 『ECO』, 27권 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73-311.
- 서지현(2024), 「플뿌리 환경주의의 관점에서 본 라틴아메리카 토지의 의미 변화: 멕시코 EZLN과 브라질 MST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37권 1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61-79.
- Akram-Lodhi, H and Kay, C.(2009), “The agrarian question: peasants and rural change,” *Peasants and Globalizations: Political economy, rural transforma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eds. by Akram-Lodhi, H and Kay, C.,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Araghi, F.(2009), “The invisible hand the visible foot: peasant, dispossession and globalization,” *Peasants and Globalizations: Political economy, rural transforma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eds. by Akram-Lodhi, H and Kay, C.(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ere, C. and Royce, F.(eds.)(2009), *Rural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Organizaing for Sustainable Livelihoods*.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Defensoría del Pueblo(2024). *Reporte de Conflictos Sociales*. No. 239.
- García, M. E.(2013), “The Taste of Conquest: Colonialism, Cosmopolitics, and the Dark Side of Peru’s Gatronomic Boom,”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8(3), 505-524.
- Higuchi, A. et al.(2022),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on peruvian quinoa consumption: a top lima and modern metropolitan lima approach,” *Journal of Ethnic Foods* 9(39), 1-11.
- Hobsbawm, E.(1994), *The Age of Extreme: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Vintage Books.
- Hunefeldt, C.(1997), “The Rural Landscape and Changing Political Awareness. Enterprises, Agrarian Producers, and Peasant Communities, 1969-1994,” *The Peruvian Labyrinth. Polity, Society, Economy*, eds. by Cameron, Maxwell, and Mauceri, Philip,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Kay, C.(2001), “Reflections on rural violence in Latin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22(5), 741-775.
- Kay, C.(2002), “Why East Asia overtook Latin America: agrarian reform, industrialisation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3(6), 1073-1102.
- Kay, C.(2006), “Rural Poverty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Agrarian Change* 6(4), 455-508.
- Kay, C.(2008), “Reflections on Latin American Rural Studies i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eriod: A New Rurality?,” *Development and Change* 39(6), 915-943.
- Kerseen, T. (2015), “Food sovereignty and the quinoa boom: challenges



- to sustainable re-peasantisation in the southern Altiplano of Bolivia,” *Third World Quarterly* 36(3), 489-507.
- Mallon, F. E.(1983), *The Defense of Community in Peru’s Central Highlan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Donell, E.(2024), “*La despensa nacional: Quinoa and the Spatial Contradictions of Peru’s Gastronomic Revolu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59, 84-104.
- McMichael, P.(2006), “Peasant prospects in the neoliberal age,” *New Political Economy* 11(3), 407-418.
- McMichael, P.(2009), “Banking on Agriculture: A Review of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Journal of Agrarian Change* 9(2), 235-246.
- Pouliot, M. and Rasmussen, M. B.(2023), “Re-imagining Land: Conceptualizing the changing form and content of the Andean Peasant Community in Peru,” *Geoforum* 103859, 1-13.
- Rasmussen, M. B.(2016), “Unsettling Times: Living with the Changing Horizons of the Peruvian And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3(4), 73-86.
- Rasmussen, M. B.(2019), “Conservation Conjuncture: Contestation and Situated Consent in Peru’s Huascarán National Park,” *Conservation and Society* 17(1), 1-14.
- Rasmussen, M. B.(2020), “Contradictions of community: capitalist relations in highland Peru,”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1), 74-91.
- Starn, O.(1991), “Missing the Revolution: Anthropologists and the War in Peru,” *Cultural Anthropology* 6(1), 63-91.
- Starn, O.(1994), “Rethinking the Politics of Anthropology: The Case of the Andes,” *Current Anthropology* 34: 13-38.

- Teubal, M. (2009), "Peasant struggles for land and agrarian reform in Latin America, *Peasants and Globalizations: Political economy, rural transforma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eds. by Akram-Lodhi, H and Kay, C.,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incent, S.(2012), "Community, *Comunidad*, Collectives and Neoliberal Political Decentralization in Peru," *Anthropologica* 54, 239-251.

❖ ABSTRACT

Changes in Peruvian Rural Society and Andean  
Peasant Communities: Beyond Utopian  
Communitarianism

Seo, Jih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ngaging in a critical study of the Orientalist interpretation of Latin America in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Andean reg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introduces anthropologist Orin Starn's concept of 'Andeanism' and analyzes the discrepancy between how an outside observer perceives Andean society and the actual reality of the Andean peasant community. Andeanism refers to the perception that the Andean region and its inhabitants still maintain the communitarianism of the Inca Empire, which is based on reciprocal relationships. This perception, which is ahistorical and fixed to a specific place, shares similarities with the colonial cognitive framework described by Said in Orientalism. It dichotomizes the Andean region from the outer region and otherizes the Andean region by associating it solely with the Inca past and the specific place of the Andean highlan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peasant communities in rural Andean society in Peru, using Starn's concept of Andeanism. By examining the reality of peasant communities undergoing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through constant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society, the study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Orientalist interpretation of Andean society and reality.

Keywords: Orientalism, Andeanism, New Rurality, Peasant Community,  
Peru

■ 논문투고일 : 2024. 05. 07

■ 심사완료일 : 2024. 06. 07

■ 게재확정일 : 2024. 06. 11